



장마철 농기계 침수 피해 '사전 보관 관리', '침수 직후 조치'가 좌우

- 농촌진흥청, 장마철 농기계 보관과 침수 농기계 점검 요령 소개
- 안전한 곳에 농기계 보관하고, 침수 시 시동 금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침수됐을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점검한 뒤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여름, 일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도 장마철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농기계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침수됐을 때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둔다.

농기계는 비와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녹이 슬거나 부품이 부식될 수 있다. 장마철을 앞두고 기계에 묻은 흙, 먼지, 볏짚 등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고, 금속 부위에는 기름칠해 보관한다.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경우,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은 뒤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가능하면 지대가 높고 물 빠짐이 잘되는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이 좋다.

농기계가 침수되면 시동을 걸지 않도록 한다. 침수된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시동을 걸면 연소실 안으로 들어간 물이나 이물질로 엔진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또한 누전, 합선으로 전기 배선이 탈 수도 있다.

침수 농기계는 깨끗한 물로 흙탕물과 오물을 씻어낸 뒤 충분히 말린다.

물기가 마르면 주요 부위에 기름칠하고 각종 필터와 엔진오일, 기어오일 등 윤활유, 연료는 모두 빼낸 뒤 새것으로 교환한다.


배터리가 장착된 농기계는 연결된 전선을 분리하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아낸다. 이후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를 발라 부식을 막는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거나 이상이 있으면 새 배터리로 교체한다.

소음기 내부에도 물이나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나사를 풀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고장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한 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은 농촌진흥청 농사로(nongsaro.go.kr)에 접속해 농업자재→농업기계→계절별 관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발농업기계과 김병갑 과장은 “농기계 침수 피해는 사전 보관 관리와 침수 직후 조치에 따라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라며, “장마철에는 농기계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침수됐을 때는 절대 무리하게 시동 걸지 말고 점검 절차에 따라 조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침수 농기계 정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발농업기계과	책임자	과 장	김병갑 (063-238-4041)
		담당자	연구사	이정민 (063-238-4022)
				



침수 농기계 현장 정비지원 모습



수해 지역 침수 농기계



농업기계 안전이용 요령